

출장보고서

I. 출장개요

- ☐ 목적: LINK Expert Group Meeting on the World Economy 참석
- ☐ 출장지: 미국 뉴욕
- ☐ 출장자: 이한규 부연구위원, 김성태 부연구위원
- ☐ 기간: 2012년 10월 21일~26일(4박5일)
 - 출장일정
 - 10월 21일: 출국(인천→뉴욕)
 - 10월 21일: 토론준비
 - 10월 22~24일: 컨퍼런스 참석
 - 10월 25~26일: 귀국(뉴욕→인천)

II. 주요 활동 내용

가. World Economic Outlook

- ☐ 발표: LINK Global Economic Outlook 및 Commodity Markets and International Tourism
- ☐ 내용
 - LINK 경제전망은 미국 등 주요선진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미국의 재정절벽 관련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유로지역의 재정건전화 지속되는 것으로 전제
 - 국제유가는 금년의 \$110에서 점차 하락하여 2013~14년에 연평균 \$105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제

○ 향후 세계경제는 2013~14년에 각각 2.5%, 3.3%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

- 향후 세계경제는 유로지역의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되면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
- 원자재 가격은 점차 하향 안정화될 전망

세계경제 성장률

							Change from June 2012 forecast	
	2005- 2009 ^a	2010	2011 ^b	2012 ^c	2013 ^c	2014 ^c	2012	2013
World	1.8	4.1	2.7	2.3	2.5	3.3	-0.2	-0.6
Developed economies	0.3	2.7	1.4	1.2	1.2	2.1	0.0	-0.6
United States of America	0.2	3.0	1.8	2.1	1.7	2.7	0.0	-0.6
Japan	-0.7	4.4	-0.8	2.5	1.4	1.1	0.7	-0.7
European Union	0.6	2.0	1.5	-0.3	0.6	1.7	-0.3	-0.6
EU15	0.4	2.0	1.4	-0.4	0.5	1.6	-0.3	-0.6
New EU members	3.1	2.3	3.1	1.3	2.2	2.9	-0.3	-0.5
Euro zone	0.5	1.9	1.5	-0.5	0.3	1.4	-0.2	-0.6
Other European	1.4	1.7	1.8	1.7	1.5	1.9	0.6	0.2
Other Developed countries	1.5	2.8	2.3	2.3	2.0	3.0	0.0	-0.6
Economies in transition	3.7	4.1	4.5	3.5	3.6	4.2	-0.5	-0.6
South-eastern Europe	2.8	0.5	1.1	-0.3	1.3	2.6	-0.9	-0.5
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and Georgia	3.8	4.5	4.8	3.8	3.8	4.3	-0.5	-0.6
Russian Federation	3.3	4.0	4.3	3.7	3.6	4.2	-0.7	-0.8
Developing economies	5.8	7.5	5.8	4.8	5.2	5.7	-0.5	-0.6
Africa	4.7	4.6	0.9	5.0	4.8	5.1	0.8	0.0
North Africa	4.5	4.0	-6.0	7.5	4.4	4.9	3.1	0.0
Sub-Saharan Africa	4.8	4.9	4.4	3.8	5.0	5.2	-0.3	0.0
Nigeria	4.3	7.8	7.5	6.4	6.8	7.2	0.1	0.0
South Africa	3.2	2.9	3.1	2.5	3.1	3.8	-0.3	-0.4
Others	6.2	5.4	4.2	3.8	5.6	5.3	-0.4	0.2
East and South Asia	7.6	8.8	6.9	5.6	6.0	6.5	-0.7	-0.8
East Asia	7.7	9.2	7.1	5.9	6.3	6.7	-0.6	-0.6
China	11.4	10.4	9.3	7.7	8.0	8.2	-0.6	-0.5
South Asia	7.2	7.1	6.1	4.4	5.1	5.7	-1.2	-1.0
India	8.4	8.9	7.1	5.5	6.1	6.5	-1.2	-1.1
Western Asia	3.5	6.2	6.7	3.6	3.5	4.1	-0.4	-0.9
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	3.2	6.0	4.4	3.3	3.9	4.4	-0.4	-0.3
South America	4.2	6.4	4.3	2.9	4.0	4.4	-0.9	-0.4
Brazil	3.6	7.5	2.7	1.7	4.0	4.4	-1.6	-0.5
Mexico and Central America	1.1	5.6	4.3	4.1	3.9	4.6	0.7	0.0
Mexico	0.8	5.8	4.0	4.0	3.8	4.6	0.6	-0.1
Caribbean	5.2	3.4	6.0	3.0	3.7	3.9	-0.3	-0.3
Least developed countries	7.4	5.8	3.8	3.7	5.8	5.5	-0.4	0.1

□ 하방위험에 대한 논의

○ 유로지역의 구조조정 방향에 대한 수정이 필요

- 부채 수준 안정화 과정에서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느리게 이루어질 수 있음.
- 재정위기 국가를 중심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,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로존 국가에서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
- 현재 유로존 국가별로 실업률 편차가 큰 가운데 금융위기 이후의 실업률이 높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음.
-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유로존 국가의 적정 실업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

○ 중동지역의 정치적 문제가 원유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경우 경기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.

- 다만 이러한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원유 생산을 추가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중동지역 정치적 불확실성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

○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

- 미국 대선 이후 재정절벽 해결을 위한 양당 간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.
-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견해 차이가 상당한 만큼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움.
- 민주당이 주장하는 한시적 감세정책의 종료 및 최고세율 인상과 공화당이 주장하는 복지 분야의 의무지출 축소 간에는 접근 방식에 있어 차이가 존재

나. Regional Outlook

□ 미국

- 미국 경제는 금년 초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으나, 유로지역 재정위기의 심화로 세계경제가 둔화되면서 예상보다 낮은 성장률을 시현할 전망
 - 내년 초로 예정된 재정절벽 관련 불확실성도 경기회복세를 저해한 것으로 판단
- 미국 경제는 2013년에에도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
 - 재정절벽과 관련한 정치적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재정지출 감소 혹은 감세 종료는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임.
 - 반면, 주택시장 회복세 및 FED의 양적완화 정책 지속은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.
- 미국 경제는 2013년에 1.7%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금년의 2.1%보다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판단

□ 일본

- 일본경제는 2012년~13년에 각각 2.5% 및 1.4%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
 - 일본경제는 금년에 2011년 대지진의 영향으로부터 회복되면서 대체로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
 - 반면, 2013년에는 정부의 추경 지출 종료, 연금 구조조정, 소비세 인상 등의 영향으로 금년보다 낮은 1.4%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
- 한편, 미국 및 유로지역의 양적완화 정책이 지속되면서 엔화 가치는 당분간 상승할 전망

- 일본의 무역수지는 원자력 발전 종료에 따른 석탄, 가스 등 에너지 자원 수입이 증가하면서 적자를 기록할 전망

□ 유로지역

- 유로지역은 2012년~13년에 각각 -0.3% 및 0.6%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
 - 유로지역 재정위기 지속과 재정건전화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유로지역은 금년에 음(-)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
 - 유로지역은 그리스, 스페인 등 재정위기 국가를 중심으로 내년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0.6%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
- 단일 화폐인 유로화를 사용하면서 역내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
 -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재정위기 국가를 중심으로 경상수지 적자는 누적되는 모습
- 유로지역 재정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ESM 확충 등 ECB, IMF 등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회원국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

□ 아프리카

- 아프리카 지역은 2012년~13년에 각각 5.0% 및 4.8%의 비교적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
 - 원유 수출 국가의 성장세 지속과 SOC 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
 - 아프리카 국가의 대외개방도가 점차 확대는 성장률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.
 - 경제성장과 함께 내수도 점차 확대는 향후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
- 다만 아프리카 지역은 높은 물가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

□ 라틴아메리카

-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2012년~13년에 각각 3.3% 및 3.9%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
 -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금융위기 이후 평균 4.6%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을 감안할 때, 최근의 성장세는 다소 약화된 상황
-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성장세는 내수 둔화의 영향을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.

□ 아시아

- 동남아시아 지역은 2012년~13년에 각각 3.8% 및 5.0%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
 - 중국의 경우 금년에 7.7%, 내년에 8.0%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전반적인 성장세는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판단
 - 중국의 비교적 낮은 성장세는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에 따른 대외수출 감소에 주로 기인
- 서아시아 지역은 2012년~13년에 각각 3.6% 및 3.5%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
 - 중동지역의 원유수출국은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나, 세계경제 둔화로 원자재 가격이 하향안정화되면서 최근의 성장률보다는 낮은 수준에 머물 전망

다. 원자재 가격

□ 원유 및 비철금속 가격

-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로 원유 가격은 2013~14년에 약 105달러 수준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

- 이란의 핵관련 문제가 확대되면서 이란산 원유의 금수조치가 내려졌으나, 이란을 제외한 OPEC국가의 석유 생산이 증가하면서 원유 가격은 안정화되는 모습
 - 이란에 대한 금수조치로 원유가격이 상당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, 주변국의 원유생산 확대가 이란의 원유생산 감소를 상회하면서 원유가격 안정화에 기여
- 비철금속 가격 또한 세계경제 둔화의 영향으로 현재 수준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

□ 곡물가격

- 미국 지역을 중심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면서 국제곡물가격이 금년에 크게 상승하였으나, 향후에는 점차 정상화될 전망
 -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옥수수, 대두 등 주요 곡물의 단위당 생산량이 30년래 최소를 기록
 - 이로 인해 주요 곡물가격이 2007~08년 수준으로 급등하였으나, 주요 곡물생산국이 재배면적을 확대하면서 향후 곡물가격은 점차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됨.

라. International Policy issues and Global modeling

□ International Policy Issues

- 세 개의 논문이 발표 및 토론되었으며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.
- Pavlos Karadeloglou, ECB, Cross-Country Differences in the Trade Balance Contributions of Price and Non-Price Competitiveness
 - 세계교역량 위축에 비해 EU의 교역량 위축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면서 세계 총수출에서 EU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
 - 가격 및 비가격 경쟁력 약화가 모두 이러한 수출 비중 감소에

기여한 것으로 나타남.

- 역내 개별 국가별 차이는 주로 가격 경쟁력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

- Christian Dreger and Yanqun Zhang, DIW and CASS, The Chinese Impact on GDP Growth and Inflation in the Industrial Countries

- 간단한 VAR 모형을 이용하여 중국의 성장률 충격이 주요 선진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
- 실증분석 결과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중국의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이 주요 선진국 경제의 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에 양(positive)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남.
- 특히, 이러한 효과는 일본의 경우 두드러진 반면 EU는 미미하였으며, 미국의 경우는 분석 결과가 안정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남.

- Byron Gangnes, Univeristy of Hawaii, Global Production Networks and Trade Transmission

- Global Value Chain은 내구재 성격이 강한 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이들 산업의 경우 재고조정도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음.

□ Global Modeling

- 세 개의 논문이 발표 및 토론되었으며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.
- Matthieu Charpe and Peter Flaschel, ILO & Bielefeld, Double Phillips Curves and Demand Regimes in the US and Europe
 - 명목임금 경직성과 명목가격 경직성이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상이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.

- 유럽의 경우 총수요가 임금 변동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반면, 미국의 경우 기업이윤 변동에 더욱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.
- 이는 유럽의 경우 명목임금 경직성이 더욱 두드러지는 반면, 미국은 명목가격 경직성이 더욱 두드러지기 때문임.
- Jacques Kibambe Ngoie, University of Pretoria, Bifurcation Boundaries in Macroeconomic Models
 - 경제 동학 모형에서 나타날 수 있는 Bifurcation Boundary 문제를 거시경제모형의 측면에서 개관함.
 - Bifurcation Boundary 문제란 parameter space에서 parameter가 미세하게 변동하는 경우에도 모형의 질적 구조가 크게 변동하는 상황을 지칭
- Ekkehard Ernst and Christian Viegelahn, Considering Labor Market Mismatch and Hiring Intentions: A Quarterly Forecasting Model for Employment
 - ILO의 분기별 고용 예측모형의 개발과정에서 집필된 논문임.
 - 기존의 거시경제변수만을 이용하여 예측모형을 구성할 경우와 비교하여, 모형에 경제주체의 기대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변수와 노동시장의 불일치(mismatch)를 나타내는 변수를 추가하였을 때 예측력이 제고되었음을 보고

※ Conference Program 별첨